

1. 기술- 윤리학

- 가. 도덕적인 현상과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함.
- 나. '전 세계 사회 집단의' 구체적인 도덕적 관행에 특별한 주의. 도덕적 관행을 문화적 '사실'로 봄
- 다. 도덕 원리의 정립보다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봄
- 라. 윤리적 '현상'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자 한다. << 주의!! 기술 윤리학!
- 마. 도덕 발생의 모태는 사회적 관습이다.
- 바. 현실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메타와 공통점! 규범 윤리학은 둘 다 현실에 관심 두는데!)
- 사. 규범 윤리학에 영향을 준다! 당연한거져
- 아. 절대 가치 평가 하지 않아요! 중립적이야.

2. 이론-규범 윤리학 - 윤리학 초기.

- 가. 의무론 : 의무나 당위 등 동기 중시, 인격주의!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 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도 됨.
- 나. 덕윤리설 : 습관화된 내면적 덕 중시. / 매킨타이어, 테일러 /
유덕한 성품이 자발적인 도덕 행동으로 표현됨
- 다. 공리-주의
 - 1) 전체주의와는 다르다 전체주의와는!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자는 주장 ㄴㄴ한다.
 - 2) 안락사 허용 여부 판단 쉽다. 손익만 비교하면 되거든
 - 3) 자신의 이익이 타인의 이익과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4)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며, 또한 타인의 행복에도 관심을 둬야 함.
 - 5) 자신의 자유가 가져올 사회적 결과를 고려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 자유를 누림
 - 6) 가언명령(=조건부)
 - 7) 형벌을 '악'으로 봤다!
 - 8) 99명이 찬성하는것과 1명이 찬성하는 것. '다수'가 찬성한다고 무조건 옳은게 아니다!! 주의!
99명 찬성인데 -100이고, 1명이 찬성인데 100이면 -> 당연히 1명이 찬성하는 걸로 간다. 이익!
- 라. 안락사
 - 1) 의무론 : 자신의 생명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자신이 포기해서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생명에 대한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 2) 공리주의 : 인간 존재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고, 구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행위의 도덕적 허용 여부는 본인과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욕구의 만족과 욕구의 좌절 정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 마. 객관적 - 목적과 법칙으로 작용하는 도덕규범을 정립함. (객관-이라는 표현 쓰였지만 기술윤리 아님)
- 바. '행위의' 정당화
- 사. '이론적' 분석
- 아. 도덕적 추론의 규칙 <-(의 논리적 탐구 = 메타)
- 자. 이론 규범 연구학도 학제적 성격! 이론의 정당화를 위한 학제적 연구!
- 차. 어떠한 도덕 이론이 타당한가에 관심을 갖는다. **** 이론규범 과 실천규범 의 공통점!!!!

3. 메타- 윤리학 = 분석 윤리학(20c 초반) [간학문적]

- 가. 인지주의 : 도덕적 진리는 인식 될 수 있다. 도덕적 진술의 참 거짓 판별 가능함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나. 비인지주의 : 인지주의 반대임
 = 정서주의 : 선악에 객관적인 의미가 존재하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의 정서적 감정으로 판단하는거야.
 감정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 다. 옳다는 것의 의미와 그 정당화. 도덕적 행위와 기준 등을 인간이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와 같이 윤리학 자체에 대한 질문에 답함.
- 라. 윤리학적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함
- 마. 맥락적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 바. 도덕적 개념의 의미를 명료화 (이론규범 아님. '개념'의 의미!)
- 사. '논리적' 정당화
- 아. '언어의' 분석
- 자. 이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응용윤리에 사용될 수 있음. - 학문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 차. 도덕적 지식의 성격과 근거는? 도덕적 속성은 존재하는가? 옳음과 그름의 의미는 뭔가?
- 카. 도덕 판단의 타당성 입증!!! 이론규범같지?메타야!
- 타. 을은 주로 학문적 성립가능성을 탐구하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 이런거. 앞은 메타 뒤는 응용, 잘 끊어서, 잘 끊어서 낚이지 말라.

4. 응용- 윤리학 (20c 후반)

- 가. 현실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학제적 성격. 이론규범과 이유가 다르다
- 나. 도덕 원리를 정당화.
- 다. 사회적 관행 - 으로 해결이 안돼서 나온 게 응용윤리.
- 라. 메타 윤리학의 퇴조로 등장함.
- 마. 소크라테스, 로크, 듀이, 칸트 등등.. 사실은 역사적으로 오래 됨
- 바. 임신부가 낙태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거야. 행복 증진은 선이야. 라는 것은, 이론 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결국은 응용 윤리학!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니까!
- 사. 어떠한 도덕 이론이 타당한가에 관심을 갖는다. **** 이론규범 과 실천규범 의 공통점!!!!
 응용규범 윤리학도 규범을 정립한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해야 하는 도덕 규범을 정립

5. 니부어-

니부어. 개인-개인 일때는 다른사람의 이익 고려 가능!

집단일때도, 불가능은 아니다. 힘들지만.. 타인 이익 고려 가능!

그리고, 특정 집단이 아니라, 모~~~든 집단에서 이기주의가 나타난다!

- 가. 도덕적으로 용인 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함. (승인받지 못할 방법에서 용인 되는/안 되는 방법이 나뉨)
- 나. 비합리적인 방법 = 양심 있는/도덕적인 사람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 = 강제적인 방법 [사회적으로 승인 받지 못 할 방법이면 X임.] 일반적인 사람은 OK 해야 하지만, 도덕적으로 깡깡한 사람은 X하는 방법.
 - 1) 불가피하고 필수적임.
 - 2) 부도덕은 안돼. 도덕적이어야 함. 강제력을 최소화해야 함.
 ->이상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어느 정도 해결 한 뒤에 -> 꼭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히 강제력을 사용
 - 3) 개인의 양심만으로 안돼서 보완하는 거임
 - 4) 강제력은 도덕적 중립임 -> 비도덕적 방법이라는 말은 쓰지 않음.
 - 5) 비도덕적 방법은 합리주의적 도덕론자, 즉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말하는 것. 모든 강제력을 통칭
 - 6) 계층 간 갈등도 완화할 수 있음. LIKE 마르크스
 - 7) '물리적' 강제력도 포함함 (당연히, 폭력도! 정의를 위한 폭력이라면 OK. 단, 개인이 아닌 사회에서)
- 다. 니부어 보기에서의 도덕주의자 = 개인윤리학자